

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모색

- 국립환경과학원, ‘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’ 구축 위한
전문가 토론회 개최

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금한승)은 6월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(서울시 중구 소재)에서 ‘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*’ 구축을 위한 다부처 간 협력을 위해 ‘국가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’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’ 개정(2024.10.22.)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통합플랫폼을 구축

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와 관련된 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, ‘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’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관리되는 적응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공동활용 방법 등을 논의한다.

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9월부터 각 부처 전문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*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.

* (총 10개 기관)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기상과학원, 국립농업과학원,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수산과학원, 국립해양조사원, 국립생태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

이번에 제6회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‘부문별 적응정보 활용 사례 및 플랫폼 기반의 정책 활용도 제고’를 주제로 기관별 총 10인의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.

토론회에서는 △통합플랫폼과 기후위기취약성 평가도구의 적응정보 활용방안(국립환경과학원), △기상부문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적응플랫폼 활용방안(국립기상과학원), △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연구 사례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국립농업과학원), △산림부문의 기후적응 연구사례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국립산림과학원), △수산부문 적응정보 고도화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국립수산과학원), △연안재해부문 적응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국립해양조사원)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.

뒤이어 △‘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 구축 현황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국립생태원), △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업 사회간접자본(SOC) 이수분야 설계 본격화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한국농어촌공사), △지속가능한 식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△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목적댐/용수댐의 장기 유입량 전망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(한국수자원공사) 발표가 이어진다.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이대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.

국립환경과학원은 모든 국민이 쉽게 적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형 인공지능(AI) 챗봇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사업*을 2028년까지 추진하며, 올해는 물환경·해양수산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.

* 물환경·해양수산('25) ▶농축식품·보건('26) ▶국토교통·생태계('27) ▶산림·산업 통상에너지 분야('28)

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“이번 토론회에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”이라며, “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적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제6회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전문가 토론회 개요.
2.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	책임자	과 장	이대균 (032-560-7300)
		담당자	연구 관	진형아 (032-560-7309)
			연구 사	오윤영 (032-560-7318)

붙임 1 제6회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전문가 토론회 개요

□ 목적

- 기후적응 연구·정책 현황 공유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협력 방안 마련

□ 개요

- 일시/장소 : '25. 6. 19(목) 13:30~17:00 / 서울 대한상공회의소(의원회의실 B2)
- 주최/주관 : 환경부 /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
- 참석자 :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협약 기관 등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(소요)	제목	기관(발표자)
13:30~13:40('10)	개회사 참석자 소개 및 기념 촬영	국립환경과학원
13:40~13:45('5)	인사말	환경부
13:45~15:45 (각 '12)	기후적응플랫폼과 기후위기취약성평가도구(VESTAP)의 적응정보 활용 방안	국립환경과학원 오윤영/노순아 연구사
	기상부문 기후변화 현황·전망 자료	국립기상과학원
	제공 현황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김도현 연구사
	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연구 사례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	국립농업과학원 어진우 연구사
	산림부문의 기후적응 연구사례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국립산림과학원 박고은 연구사
	수산부문 적응정보 고도화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국립수산과학원 김창신 연구사
	연안재해부문 적응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국립해양조사원 이화영 연구사
	「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」 구축 현황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국립생태원 원호연 전임연구원
	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업SOC 이수분야 설계 본격화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한국농어촌공사 박달주 과장
	지속가능한 식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수경 부연구위원
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목적댐/용수댐의 장기 유입량 전망 및 적응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	한국수자원공사 강신욱 수석연구원	
15:45~15:55('10)	휴식	-
15:55~16:55('60)	종합토론	협의체 기관
16:55~17:00('5)	정리 및 폐회	국립환경과학원

※ 상세 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붙임 2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개요

□ 개요

- (기후 대응체계 강화) 부처별로 생산·제공* 중인 기후적응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손쉬운 정보 접근 등 활용도 제고
 - * (환경부)가뭇포털·대기정보포털·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, (기상청)기후정보포털, (복지부)보건복지데이터포털 등 약 177개 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운영 중
- (사업기간) '25년~'28년(4년)

□ 주요내용

- (구축방식) 다부처 정보를 연계·통합하여 적응정보를 표준화하고, AI 챗봇을 활용하여 모든 적응주체(국가, 지자체, 전문가, 국민 등)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
- (정보제공) 핵심정보 선별 및 고도화 등을 통해 맞춤형 적응정보 제공
 - (국가/지자체)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에 활용
 - (연구자/산업계) 최적 대응기술 개발 등에 활용
 - (대국민)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·홍수·가뭇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,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